

## 쇼호지 절

쇼호지 절은 자연이 풍부한 붓포지 산기슭에 위치한 선종 사찰(선종의 수행이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절)로, 무한한 빛과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경내, 특히 입구 근처 나무들이 선명한 색으로 물드는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 역사

쇼호지 절에 따르면 이 사찰은 744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사카 신노(728~744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신노의 고분 근처에 교기(668~749년) 스님이 창건했다고 합니다. 교기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일본 각지를 여행하며 사회사업에 힘썼던 유명한 승려입니다. 한때 산 정상에 위치한 큰 사찰이었으나, 14세기 초 남북조 내란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에도 초기(17세기 중반)에 붓코지 성주였던 다무라 씨는 붓포지 산기슭에 사찰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건했습니다. 1644년에 다무라 씨의 요청으로 에이겐지 절의 주지였던 노세쓰 문간(1601~1671년)이 임제종 에이겐지파로서 쇼호지 절을 다시 세웠습니다. 고미즈노 천황과 결혼하여 와즈카의 토지를 하사받은 도쿠가와 가즈코(도후쿠몬인, 1607~1678년)는 이 절의 중요한 후원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 사찰 경내

사찰 입구 문과 불전은 교토부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원래 교토 센도 고쇼에서 도쿠가와 가즈코가 기증한 것이며, 불전은 17세기 중반 재건 당시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불전에 있는 아미타여래 좌상은 에도 시대(1603~186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전 오른쪽에는 도교, 신도, 불교 등을 기반으로 한 민간신앙인 경신신앙의 신을 모신 경신당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12간지 동물을 각각 하나씩 안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둥근 얼굴의 지장보살상이 12체 있습니다. 작은 계단을 올라가면 여행자와 어린이의 수호신으로 숭배되는 지장상을 모신 지장당이 있습니다.

보통 불전은 비공개이므로 참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사찰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불전 안에는 자비의 보살인 성관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도쿠가와 가즈코가 쇼호지 절에 기증하기 전에 자신의 궁실에서 참배하던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 사계절의 아름다움

사찰의 참배길 양쪽에는 여름에 푸른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풍명소로 유명한 시가현의 총본산 에이겐지 절이 기증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나무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은행나무 거목이 선명한 노란색으로 색을 더합니다. 다른 계절에도 진달래, 붓꽃, 사라쌍수 등 다양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오시는 길

‘와즈카야마노이에(和東山の家)’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큰 교차로에서 좌회전  
도보 약 8분